

01 목회권면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 넘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에 삶에 참된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02 예배

- ① 지난주부터 새벽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 ② 5월 10일부터 주일학교, 청년, 주일찬양, 수요일예배 및 모든 모임을 시작합니다.

03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시작은 5월 15일부터이며 찬양 인도 및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 지원 받습니다. 담당 전화 : 010-7547-8805

04 성례식

2020년 상반기 유아세례,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05 새가족교육

5월 17일 새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06 새벽차량운행

새벽예배 차량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전화 : 010-2661-0196

07 온라인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십일조, 감사, 건축헌금등 헌금종류의 첫 글자와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선교-홍길동, 주정-홍길동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교우 소식

소천
엄영애권사 모친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4월 26일
7권 17호

*여는찬양	주기도문		
*예배선포	인도자		
*찬송	9장		
*공동기도문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01장		
기도	국영숙 권사	황인순 권사	윤진순 권사
교회소식 새가족환영	인도자		
오늘의말씀	요20:19-23		
찬양	은혜찬양대	호산나찬양대	할렐루야찬양대
오늘의말씀	<p style="text-align: center;">“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윤호식 목사</p>		
봉헌	412장		
*찬교	다같이		
*송영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축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전도사	김상태, 장중현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한경민, 윤정민, 강신모
반주자	하은미, 박은영, 김병준, 김슬기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5월 3일 어린이 주일
2. 해외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5월 10일 아버지 주일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4. 바나바 사역과 새가족 정착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오후2시

오후7시

5월10일부터

5월13일부터

4/27(월)	겔45:1-17
4/28(화)	겔45:18-46:24
4/29(수)	겔47:1-12
4/30(목)	겔47:13-48:35
5/1(금)	시1:1-6
5/2(토)	시 편 강 해

5월10일부터

■대표기도	1부	2부	3부	오후
5/03	차금미	최경란	김학수	
5/10	문명숙	조영호	이명호	장복실
5/17	노옥숙	조옥순	김정인	이기옥

■식당봉사, 수요전도		
05/10 : 5지역(조옥순)	05/31 : 2지역(권경자)	
05/17 : 6지역(오환애)	06/07 : 3지역(윤진순)	
05/24 : 1지역(김민수)	06/14 : 4지역(정기숙)	

■ 지난 주 등록

■ 1, 2 월 등 록 자

신주희(하나여성교)	박선민(유니게여성교)	이미정(롯데성교회)
최병주(4남성교회)	윤미란(유니게여성교)	김완수(3남성교회)
심주원(청년부)	진마숙(마리아여성교)	손미정(유니게여성교)

제 목: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눅24:28-35)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했던 클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 잠깐이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사건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기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눅24:16**“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해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 두 사람에게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권합니다.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 이제 캄캄해질 텐데 어떻게 길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숙소에서 머물다가 내일 출발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줍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눅24:30-31**“그들과 함께 음식 갑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언제 영의 눈이 열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축복해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과 같이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는 상실한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을 만나고서 그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24:32**“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말씀 들을 때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을 믿음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이 뜨거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33절“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침도 오후도 아니고 저녁입니다. 이미 밝은 캄캄한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리가 멀어도 당당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무려 10킬로의 거리를 방중에 달린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 주일 오전 09:30~10:20 **4층, 새가족실 5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층, 드림실**

미 정 **4층, 새가족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 **본 당 5월 13일부터**

■ 십일조

강예식 김학수 손막동 정유진 조옥순 채석진 무명

■ 감사헌금

강대의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김기자 김민대 문다윗 문성우 문예준 문운유 문지연 신동현 윤동섭 윤호식 이경재 이복순 이항실 장정순 조옥순 채석진 하상호 하은미 황인순

■ 선교헌금

강예식 문지연 윤선례 정명희 조미애 조옥순

■ 일천번제

김정혜 문다윗 문성우 문예준 문운유 박춘주 임채명

■ 주정헌금

김귀근 김민수 박인순 변성진 엄만유 윤정민 윤진순 이원규 이종구 장 민 장아현 장 윤 장재욱 조근석 진은자 최경란 최영식

■ 건축헌금

서승우 유복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나라 이민족을 코로나19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주소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 지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건강과 남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도 책임져 주소서,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예배와 헌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선하게 풀리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들이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도록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되게 하옵소서, 동성이 학업과 앞날 속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선교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려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어머니 건강 90프로 이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천국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동생 위험한 일 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짝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blessing 여겨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중성스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축 구	탁 구	바 독	족 구	등 산	불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